

# 주일가정예배

2022년 3월 20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고난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한결 같은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245장 ..... 다같이

1.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둔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2.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3.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 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4. 청아한 음악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후렴)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오니

건너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마가복음 5장 9절 ..... 인도자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설 교 ..... 『예기치 못한 기쁨에 - 바람처럼 설레어』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95장 ..... 다같이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2.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3.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4.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가 되도록, 분열이 사라지고 통합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홀리클럽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예기치 못한 기쁨에-바람처럼 설레어

마가복음 5:9

C. S. 루이스(1898-1963)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영문학자요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영향력 있는 저술을 남겼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 1929년 회심하여 논리적이고 문학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논증하는 탁월한 작품들을 남겼다. ▶『예기치 못한 기쁨』(1955)에서 그는 10살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잃게 되었는지 상세히 묘사한다. 신앙의 상실은 ‘기쁨의 상실’을 가져왔다. 음악, 문학, 새로운 지식을 대해도 예전처럼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다. 무신론과 염세주의는 짝이다. 갈망하던 대상은 손에서 빠져가고 진짜 갈망만 남게 되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 즉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이후 루이스는 갈망을 채우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다. “누가 내 갈망의 대상인가?”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내 갈망의 대상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사냥개가 냄새를 잘못 맡은 것이다. 기쁨을 위해 쾌락도 추구도 해보았지만 어떤 쾌락이든 그가 갈망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기쁨’은 소유물이 아니며 오래 전에 있었던 무언가, 저 멀리 있는 무언가, 아직 ‘이르지 않은’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이다. ▶ 그는 1929년부터 점진적으로 회심하다 1931년 회심했다. 루이스는 이전부터 세상과 육체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조지 맥도널드의 『판테스티스』를 읽으며 “내가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손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루이스를 세 단계로 찾아오셨다. ①첫째는 낚시꾼처럼 미끼를 던져 물게 하고 조금씩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 “존귀한 어부(예수님)가 낚시대를 던지셨고, 내가 그 낚시바늘을 물었다는 생각을 그때는 꿈에도 하지 못했다.” ②둘째는 고양이가 조용히 다가와 쥐를 잡는 것처럼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는 편견 없이 지적으로 정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직함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③셋째는 사냥개처럼 다가오는 단계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다. 루이스는 헤딩턴 힐로 올라가는 버스의 이층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고, 그런 선택을 하자마자 그는 마침내 녹기 시작한 눈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루이스는 자기 회심의 경험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묘사했다(막 4:35-5:20).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 시려고 큰 광풍을 뿜고 갈릴리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자, 자학하는 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 치료를 거부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다.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려라”고 사명을 주셨다. 루이스는 말 그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였다. 그의 안에는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꾼 증오가 가득 들어 있었다. ▶기독교인이 된 뒤에 기쁨은 사라지는가?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주 찾아온다고 믿는다. 이 기쁨은 천국을 향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정표가 자주 보이지 않아도 상관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